

周易思想의 實體意識에 對하여

특히 安浩相氏의 批判에 答함(三)

跛龔生

그런데 安浩相氏는 拙文中 『周易은 形而上者를 謂之道이오. 形而下者를 謂之器이오. 化而裁之를 謂之□이오. 推而行之를 謂之通이오. □而措之天下之民을 謂之事業이라 하였는데 周易思想의 道는 理를 이룸이오. 또 理는 自然作用으로서 物의 屬性을 이룸이다. 다시 말하면 物을 實體라 하면 理는 그 實體의 技能이라 할 수 있다』 한 句節을 □하였으되, 『跛龔生이 實體와 兩性の 概念을 如何한 意味로 使用한지 모르나 一般 哲學上에서 使用하고 잇는 意味, 卽 實體는 持續 者이매 恒久者인 反面에 屬性은 이 恒久的인 實體에 從屬한 性質이라는 意味로서 본다면 形而上者인 道는 實體이매 形而下者인 物은 兩性이 되는 故로 氏의 見解와는 全然相反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제 나는 安浩相氏가 一般 哲學上에서 使用하고 잇는 實體와 屬性의 概念을 紹介해준 努力에 對하여 먼저 敬意를 表한다. 그것은 벌써 널리 常識化한 哲學上의 概念을 喚起한 必要가 잇는 까닭이다.

그리고 『實體는 持續者이매 恒久者인 反面에 屬性 이 恒久的인 實體에 從屬한 性質이라는 意味로서』 意識 하므로 物, 卽 形而下者는 實體가 되고 道, 卽 形而上者는 物의 技能으로서 屬性이 되는 것이다. 元來 實體라는 말은 實在한 物體의 □認 이어니와 周易思想의 天地人三才는 모두 實在한 形體로서 物인 것이다. 그리고 古代에 잇어서는 物事가 잇엇을 뿐이오. 人事는 없엇다. 어찌 그리냐하면 人도 다른 形體를 가진 物과 마찬가지로 一種의 物에 지나지 아니하니 따라서 人事는 物事中에 包含되고 잇음으로써이엇다. 그러다가 人文이 變化함과 함께 人事가 複雜多歧하게 됨에 物事中으로 부터 人事를 區分하여 獨立한 言辭를 맨든것이다. 그리하여 大文□에는 物事라 하고, 事物이라 가지 아니하엿다. 어찌 그리냐 하면 事는 人의 事가아니면 物의 事가 잇을 뿐이오. 그밖에 따로 事가 存在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리고 宋代에 잇어서는 朱子는 언제나 物事과 溝하엿고, 事物이라 記한 일이 없다.

그뿐 아니라 漢籍에서 使用한 天道이니 地道이니 人道이니 하는 말은 어느 것이나 天의道, 地의道 人의道를 意味한 것이니, 그러므로 天地人은 道의 主體가 되고 道는 主體의 所有物로 해서 技能, 屬性이 된다. 그리고 持續性和 恒久性 問題로 말할지라도 宇宙는 形體로서의 物의 全體로서 持續者이며, 恒久者이니 이것이 太極思想의 全體觀念이오. 道는 全體의 自然作用 卽 技能으로 해서 理이니 이것은 周易 全篇을 通하여 文王, 周公, 孔子, 程子, 朱子 等이 다같이 論陳한 意識이다. 또 個體 問題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全體의 部分으로서 勿論 持續性和 恒久성은 制限된다. 그리고 그와 同時에 그 部分에 關한 道理도 그가 制限됨과 함께 그만큼 制限된다. 다시 말하면 어느 類型의 社會가 崩壞하면 그 社會의 道理도 또한 崩壞한다. 그리고 封建社會가 崩壞함에 그 社會의 道理가 이올러 崩壞 된 것은 歷史가 立證하는 바이다.

그런데 氏는 이에 『구차이 實體와 屬性으로 表現 하지 말고 主와 客, 或은 體와 用으로 表現한다 하면 形而上者는 制約者로서 主와 體가 되며, 形而下者는 被制約者로서 客과 用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周易原文의 本意와 또 거기에 對한 程子, 張子 伊川□□□의 見解와 또 朱子の 『形而上者, 是理, □有作用, 便是形而下者』라는 細□를 보드라도 能히 認識할 수 있다』라고 하였 다. 여기서 나는 安浩相氏에 對하여 前回の 拙文라 周易原文을 다시한 번 閱覽하심을 敢히 바란다. 어째 그러냐하면 前回拙文에서 周易原文의 本意와 그 에 對한 宋儒道學의 註解를 反復說明하여 周易思想의 形上形下論은 完全한 太極思想의 實體觀念, 卽 唯物論的 意識임을 充分히 究明 하였음으로써이다. 그리고 氏가 主客說과 體用說을 同一한 觀念으로 認識한 것은 一大錯覺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어째그러냐 하면 主客說은 二元的 觀念이오. 體用說은 一元的 意識인 까닭이다. 더구나 氏가 宋儒諸家의 註가 모두 그러케 認識했다 함은 了解치 못할 事實이다. 어째 그러냐하면 宋儒諸家는 一元的 觀念과 二元的 觀念을 同一한 意識으로 使用치 아니할 만한 見識을 가지고 잇었음을 잘 알므로써이다. 그리고 氏는 朱子の 『形而上者 是理, □有作用, 便是形而下者』라는 細註를 어떠한 嚴訓하고 또 어떠한 取□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은 太極이 兩儀를 生함을 說明한 者로서 太極이라는 實體의 形而上者, 卽 隱微한 者는 理이오. 그 理가 作用함으로 말미암아 兩儀가 生하면 太極이라는 實體는 形而下者, 卽 現象形體로서 表現된다 함이니 여기서 主客說의 二元論은 到底히 成立될 수 없다. 그런데 氏는 다시 中庸을 引用하여 『君子之道, 費而隱』-細註에서 『形而下者爲費, 形而上者爲隱』이라 함과 또 그 大註에서 『費, 用之間也, 隱, 體之微也』라 한 것을 본다 하면 形而上者는

本이며 體로서 實體이며 形而下者는 體의 用에 틀림이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에서도 말하였거니와 氏의 漢文을 取訓取義하는 方法에 對하여 자못 疑心을 禁치 못하겠다. 中籍에서 『君子之道, 費而隱』이라는 『費而隱』은 形上形下가 二元的이 아닌 것과 같이 二元的 意識이 아니다. 費는 關한 者이니 形而下者이오. 隱은 □云 아니한 者이자니 形而上者이다. 그리고 □한 者는 用이 잇지마는 그러치 아니니 한 者는 用이 없으니 隱은 體의 徵, 卽 體의 用인 것이다 元來用이란 것은 어느 體의 用이오. 體를 따라서 따로 用이 잇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氏의 『形而上者는 本이며 體로서 實體이라』 함은 氏의 引用한 中庸原文 및 그의 大小註의 本意와 相反할 뿐만 아니라 周易原文 및 宋儒諸家の 만흔 著述中에서도 發見할 수 없는 獨創인 줄도안다. 어찌 그러냐하면 實體觀念은 形上形下를 具有한 것이오. 그 어느 하나 卽, 形上形下를 區分하여 或은 形上만 가지고 或은 形下만 가지고 實體라 할 수 없음으로써이다.